

칼럼

장기채 주필



젊은층 부양부담 급증하는 나라

1960년대 일본이 인구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다마신도시'는 수도 도쿄 남서쪽에 위치해있다. 한때 인구 31만을 목표로 개발된 계획도시지만 지금은 '노인들의도시'가 돼버렸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젊은 인구의 도시 유출 때문이다. 초·중학교가 잇따라 폐교했고 집값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다마시에 따르면 당초인구는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14만734명 수준이었다.

이 중 24.7%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초고령 도시다. 카네코류이치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소장은 "아키타현,시마네현 등의 초고령 도시에서 낫시간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노인밖에 없다"며 "고령화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극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일본의 근저를 흔들고 있다는 말이다. 급증한 노년층 인구는 노동력부족과 생산력저하, 노인부양 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시키고있다. 문

제에 대응할 수 있었던 '기회의 시간'을 놓친 일본은 뒤늦게나마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국력을 쏟았다.

이는 출산·고령화가 꺾힐 것이

다. 일본인구문제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1995년을 최고점으로 이미 20년 가까이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1995년 정점대비 1000만명 이상 줄게 된다.

젊은 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던 각종 아르바이트 업종들이 채용난을 겪고있지만 임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직원들의 이탈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있다. 노인 돌봄 문제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요양관련 종사자수는 2010년 말 현재 약 133만명으로 10년 사이 2.4배가 늘었지만 여전히 수요 대비 크게 모자라는 실정이다.노인의 고독사와 각종 노인범죄도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최근 일본내에서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안 계속해서 인구절벽에 대한 경종이 울렸음에도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가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수렴해 "50년후 1억 명 정도의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유지한다"는 문구를 중장기 경제·재정 운영방침에 명기하기로 했다.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을 인구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의 큰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뒤늦게나마 '시대의심각성'을 인식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며,2026년이면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의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낮은출산율 수준과 맞물려 가질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여 노인빈곤문

제가 심각하며 노인자살율도 OECD국가 중 최고로 높아 노후 삶의 질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연금,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젊은층의 부양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이 증폭될것으로 우려된다.이러한 인구고령화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전략 하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채택되고 있다.

더 오래일하고 더 늦게 은퇴하며,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활동적고령화(activeaging)'가 핵심 기조라고 한다.따라서 100세 시대의 도래를 대비하여 우리사회는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적차원에서의 공동적 대응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늙어가는 노년기를 '여생'으로 생각하며 소극적인 인식을 버리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려는 도전과 노력을 해야한다.

이러한 정부,사회,개인의 보다 다각적인 대응 노력이 모여야 한다. 그래야 길어진 노년이 젊은 이는 물론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 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社說

16·18번 확진자 동선 공개 서둘러야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불과 하룻만에 또 확진 환자가 나왔다. 국내 18번째로 확진을 받은 이 환자는 병원에서 인대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중이었으며, 어머니의 간병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와 보건당국은 이들이 확진환자로 판명돼 격리조치에 들어가기 전까지 16일동안의 동선과 접촉자 등 필수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근거 없이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고, 크게 부풀려진 공포감으로 지역사회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호기심과 불안 심리에 편승, 특정 장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거나 함께 여행을 다녀왔던 지인들이 모두 발열증세를 보여 긴급 격리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라며 환자가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이나 병원

침상에서 괴로워하는 모습 등을 담은 출처 불명의 사진과 영상이 떠돌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광주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감염 경로, 환자 이동 경로를 파악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확진자는 지난 달 19일 태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된 이달 3일까지 16일간 격리되지 않았다. 귀국행 비행기에는 승무원 6명과 승객 166명이 동승했고 무안 공항으로 귀국했다. 거주지인 광주 광산구에서는 21세기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며 일상생활을 한 사실로 미뤄 병원 의료진이 포함해 접촉자 수를 가능하게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달 말 설 연휴를 전후로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백화점, 사우나, 학교 등 어느 곳을 얼마나 다녀왔는지도 추측만 남무하고 있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도 냉철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정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온 급강하에 따른 화기취급 주의

최근 지난해에 비해 2~3℃ 정도 기온이 올라 큰 추위가 없었지만, 2월 3일부터 강원 및 경북 일대 지역에 한파 및 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전국 소방관서에 선제적인 화재예방과 경계를 위한 '화재 위험경보'를 발령하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지속될 경우 난방기구 등 사용이 많아 화재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화기취급에 대한 주의와 화

재예방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해 2천 5백여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그 어느때 보다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열선은 안전인증 제품, 과열차단장치 및 온도조절센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열선 설치

시 절연피복 손상여부 확인 및 겹쳐서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수시로 열선의 피복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기히터를 사용할 경우 안전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벽으로부터 20cm 정도 떨어지게 설치해야 하며, 이불, 소파 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멀티탭에 전기제품 여러개를 꽂거나 장시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전기장판은 온도조절

기에 충격을 주지 않고,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분리해야 하며, 화목보일러 취급 시에는 불을 지피던 채로 장시간 출타를 자제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근에 소화기 비치 필요하다.

이처럼 겨울 끝자락 시점에서 추운날씨로 인해 겨울철 난방용품 등 사용이 빈번한 만큼 화재발생 가능성 또한 높다. 겨울철 화기취급 시에는 편리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중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철수 / 여수소방서장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